



창조과학회 대구지부 월간소식지

# 창조

발행일/2007년 8월 7일 (화)

발행인/안복수 편집/최선향

주 소/(701-825)대구 동구 신천3동 147-1

전 화/0502-365-0001, 053-743-6058

홈페이지/<http://creation21.or.kr>

## I 이달의 소식

1. 모임안내 1쪽

## II 내용

- |  |    |
|--|----|
| 1. 노아의 홍수 (3) 학교 같은 교회, 교회 같은 학교 - 이재만       | 2쪽 |
| 2. IMPACT (44) 창조적 진화: 노벨상을 받은 반다윈론 - 대구지부 역 | 3쪽 |
| 3. 과학으로 하나님을 만나다 (11) 대나무 신앙 - 김경태           | 7쪽 |
| 4. 참 아름다워라! (29) 가인은 어디서 아내를 얻었는가? - 창조과학회   | 9쪽 |

## 인사말



모두들 평안하시죠? 현재 제가 있는 필리핀은 가톨릭의 영향으로 거의 모두가 자기 자신을 기독교인이라고 말하지만, 성경이 말하는 창조를 믿지 않는 사람이 많고, 공룡을 허구의 존재로 아는 사람도 있으며, 심지어 기독교인마저도 자기들의 조상은 그곳 신화에서처럼 대나무에서 왔다고 믿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믿음이 순수해서 창조과학 강연을 듣고 나면 그것을 잘 받아들입니다. 그동안 성경에 대해 몰랐던 부분을 많이 알게 되었다거나, 과학과 성경의 조화를 이루게 되어 기쁘다고 말하는 사람들을 많이 만납니다.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롬 10:14)라는 말씀처럼, 단지 복음의 내용 뿐 아니라, 창조과학의 내용을 전하는 것이 복음을 제대로 받아들이도록 돕는데 너무나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는 대답할 것을 항상 예비하여야 하고, 그것을 다른 사람 앞에서 담대히 말할 수 있어야 하되, 개인적인 방식에 따라야 합니다. 그런데 그 개인적인 방식으로 창조과학을 이용하는 것이 이곳 필리핀에는 아주 적합합니다. 내가 받은 구원의 감격을 다른 나라 사람들과 나누고자 하는 마음이 있다면 오십시오, 가십시오, 그리고 그들을 제자 삼으십시오.

속히 여러분과 만날 날을 기대하며, 8월도 주님 안에서 기쁨과 평안을 누리시길 바랍니다.

- 창조과학회 대구지부 연구위원 이 종 현 올림 -

## 1. 모임 안내

창조과학회 대구지부에서는 정기 스터디모임(1, 3째주 목요일)이 있습니다. 이 모임을 통해서 새로운 창조과학 자료를 발굴하고, 깊이 있는 토론을 통해 보다 전문성 있는 부분에 대해 알아보며, 상호교제를 통해 사랑과 풍성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다음 모임은 아래와 같습니다.

일시: 2007년 9월 6일 목요일 오후 7시

(다음 모임 9월 20일)

장소: 동일교회 동일복음센터 103호 ☎ (053) 743-6058

내용: 기원과학 6장(인류의 기원) - 안복수

(다음 모임 기원과학 7장 - 성경관)



## 학교 같은 교회, 교회 같은 학교

학교에서는 무엇을 가르치든지 사실이라고 생각하고 가르친다. 언어, 수학, 과학, 사회, 윤리 등 모든 분야에 걸쳐 사실이라고 믿든지 그 가정 하에 가르치고 있는 것이다. 교회도 물론 마찬가지다. 하나님의 창조하심,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어진 첫 인간의 범죄, 죄악이 관영한 세상에 대한 물심판, 언어의 혼란, 이러한 인간들을 구원하고자 하는 예수님의 초림과 마지막 심판인 재림 등이 사실이기 때문에 이러한 것들을 가르치고 있는 것이다.

학교와 교회에서는 모두 사실이라고 생각하며 각각의 장소에 모여 가르치고 있다. 그런데 여기에는 많은 부분이 공유할 수 없다는 것을 쉽게 발견할 수 있다. 한쪽에서는 인간은 원숭이와 같은 하나의 동물이라고 하고, 다른 한쪽에서는 인간은 그 동물들을 다스리기 위해 특별히 창조자의 형상으로 창조되었다고 한다. 한쪽에서 윤리란 인간의 판단에 의해서 결정된다고 하지만, 다른 한쪽에서는 하나님이 나쁘다고 하는 것은 나쁜 것이고, 하나님이 옳다고 하는 것은 옳은 것이라 가르친다. 한쪽 과학은 이 세상의 모든 것은 시간이 지남에 따라 환경에 따라 변화되어 여기까지 왔다고 가르치고, 다른 쪽에서는 처음부터 하나님이 이 세상을 완벽하게 설계하여 창조하였다고 가르친다. 학교에서는 진화론과 진화론에서 파생된 내용을 가르치고 있고, 교회에서는 하나님께서 성경대로 창조하셨다는 창조론과 그 창조자의 삶의 기준을 가르친다.

그런데 학교는 과학적으로 증명된 사실을 전혀 포함하고 있지 않은 진화론과 진화론에서 파생된 인간관, 윤리관, 역사관을 사실처럼 가르치고 있다. 반면에 오늘날의 교회는 진화론적인 사고의 영향을 받아 성경적 창조에 대한 분명한 언급을 회피하곤 한다. 성경대로 창조하시고 성경대로 진 세계를 홍수로 심판하시고, 바벨탑 사건으로 사람들을 흩으신 사실을 사실 그대로 담대하게 이야기 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 솔직한 표현이다.

성경은 “오늘날 내가 네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네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에든지 길에 행할 때에든지 누웠을 때에든지 일어날 때에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신 6:5-7)”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딤후3:16)” 이라고 말한다.

이제 교회는 학교와 같이 가르쳐야 한다. 진짜 교육을 해야 한다. 일반 학교에서 가르치는 진화론적인 내용이 아닌 창조에 입각한 교육을 해야 한다. 성경에서는 성경을 벗어난 어떠한 것도 “교육”이라는 단어를 사용하지 않는다. 즉 사실에 기초한 것만이 “교육”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원래 학교는 교회와 같이 성경에 기초를 두어야 한다. 왜냐하면 사실을 가르쳐야 하기 때문이다. **창조**

## 창조적 진화 : 노벨상을 받은 반다윈론

### 서론 (Introduction)

신다윈주의의 주된 개념은 적합한 유기체가 생물학적 변이와 자연선택의 산물이라는 것이다. 적자 생존에 대해서는 잘 알려져 있다. 하지만 적자의 출현과 한 종에서 다른 종으로의 변화에 관한 문제가 여전히 어려움으로 남아있다. 다윈은 이 문제에 대한 자신의 해결책이 단지 ‘일시적인 가설이나 추정’일 뿐임을 알았으나, 더 나은 설명이 나오기 전까지는 종의 기원을 설명할 수 있는 그때까지 고안된 최고의 이론이라고 믿었다. 그는 또한 자신의 이론이 다른 동력인(efficient cause; 작용인)에 의해서 분리된 채 현재 남겨져 있는 다수의 사실을 한 데 묶는데 기여할 것이라고 믿었다(Darwin 349-350).

1900년 무렵 수십 년이 지나서, 몇몇의 신다윈주의적 이론이 새로운 생물학적 정보의 기원을 설명하기 위해서 전개되었으나 대부분의 이론들은 현재 받아들여지지 않고 있다(Bowler 1990). 지난 세기에서, 새로운 생물학적 형태의 근원을 설명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가장 성공적인 비다윈주의적 이론들 중의 하나는 프랑스의 철학자, 헨리 베르그송(Henri Bergson; 1859-1941)에 의해 체계적으로 제시된 창조적 진화였다.

베르그송의 주된 저서인 *창조적 진화*(1944)는 20개의 언어로 번역되고 수차례에 걸쳐 재판된 베스트셀러였다. 이 책의 성공은 부분적으로 그 당시의 가장 중요한 프랑스 철학자인 베르그송이 수많은 독자의 흥미를 끌었기 때문이었다(Fiero 1998). 그의 저서로 말미암아, 1921년에서 1926년까지 프랑스 대학교의 철학과 교수이자 학과장이었던 베르그송은 프랑스 한림원의 일원으로 선출되어 1927년에 노벨상을 받았다.

### 창조적 진화 (Creative Evolution)

창조적 진화이론은 그 당시 다윈주의의 주된 어려움으로 간주되었던 것을 다루기 위해서 베르그송에 의해 전개되었다. 베르그송이 설명하려고 노력했던 가장 중점적인 내용은 다윈주의가 자연선택으로부터 선택될 수 있는 새로운 유전적 정보의 근원에 대해 어떠한 만족할 만한 설명도 제공하지 않았다는 사실이었다. 그 다음으로 베르그송의 이론은 자연선택을 포함해서 증거가 잘 제공된 메커니즘이 기능을 하도록 허용하는 새로운 유전정보를 생산해 내는 반다윈적 메커니즘을 제안했다(Bothamley 2002).

베르그송의 이론에서는 모든 생명체가 다윈주의가 가르쳤듯이, 기계적 힘으로부터가 아니라 진화를 일으킨 생명 추진력(vital impulse)의 결과라고 주장했다(Fiero 1998). “**진화의 실제 사실은 적합하지 않은 것의 기계적 제거 안에서가 아니라 생명의 약동(élan vital) 안에서 생명의 창조적 고조 안에서 발견되어야 한다.**”(Edman 1944, xii). 베르그송의 이론은 사실상 특정한 방향으로 진화를 이끄는 비물질적인 생명의 약동(생명력; vital impetus)에 호소하는 목적론적 관점이다. 이 생명의 약동은 거의 무한히 다양한 생명형태의 근원이자 모든 물질 내에 불어넣어져 있으며, 그것은 또한 첫 생명체의 원래 힘이기도 하다고 베르그송은 결론을 내렸다(Goudge 1967).

베르그송은 생명의 약동이 중력이나 전자기력과 같은 기본적인 힘으로써, 그것들과 다른 많은 물리적 현상과 마찬가지로 그것의 기원은 설명될 수 없다고 말했다. 베르그송은 자신의 관점을 뒷받침하기 위해서 ‘철학적 논쟁뿐만 아니라 상세한 과학적 논점까지’ 사용했으며 화이트헤드(Alfred North Whitehead)와 철학자 산타야나(George Santayana)를 포함한 많은 식자들이 그를 따랐다(Bothamley 2002). 하지만, 자연 생물학자들은 그의 이론을 계속해서 따르지는 않았으며, 이제 기원에 대한 그의 이론은 전반적으로 경험적 증거의 부족으로 말미암아 폐기되었다.

비록, 스펜서, 밀, 다윈에 의해 크게 영향을 받았지만, 베르그송의 이론은 대개 그들의 철학과 자연주의적 세계관을 보여줬다. 혹자는 그가 진화론과 유신론을 화해시키려고 노력했다고 주장하지만, 그의 글을 보면 생명의 약동이 매우 실제적이고 심각한 문제에 대한 유일하고 실제적인 해결책임을 보여주면서 그 자신을 다윈주의와 동일시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베르그송의 이론이 다루려고 노력했던 다윈주의의 많은 문제점들 가운데는 다세포 기관이 ‘공동으로 작용하는 부분들로 이루어진 기능적 전체’로 만약 “단지 그 부분들 중의 하나나 몇 부분이 변이를 일으켰다면, 전체의 기능은 손상될 것이다”라는 사실이었다(Goudge 1967, 292). 현재 **환원불가능한 복잡성**으로 알려져 있는 이 개념은 현대 지적설계운동의 기초이다. 베르그송도 또한 환원불가능한 복잡성으로 말미암아 효과적으로 기능하기 위해서는 한 동물의 역사와 개발의 모든 단계에서 동물의 모든 부분들과 그것의 복잡한 기관이 반드시 동시에 변해야만 한다고 결론지었다. 그러나 다윈과 마찬가지로 그렇게 (자연선택에 의해) 상호 적응한 변이가 무작위적이었을 것이라고 추정하는 것을 결국 받아들이기가 힘들었다. …… 그래서 자연선택 외의 다른 작용이 형태의 연속적인 변화를 통한 기능의 연속성에 작용했음에 틀림없다고 생각했다(Goudge 1967, 292).

베르그송은 또한 다윈주의가 생명체가 점점 더 복잡해지는 방향으로 진화하는 이유를 설명하는데 실패했다고 결론 내렸다. 가장 초기의 생명체는 그 자체로는 단순하지만 환경에 잘 적응했다. 그렇다면 진화적 과정이 이 단계에서 왜 멈추지 않았는가? 왜 생명체는 ‘점점 더 위험하게’ 그것을 계속해서 복잡하게 했을까? (Goudge 1967, 292).

더 나아가 베르그송은 자연선택이라는 메커니즘으로는 어떤 것이 위험에도 불구하고 “점점 더 높은 단계의 조직으로 생명체를 이끌었음에 틀림없다”는 심각한 문제에 답할 수 없었다고 주장했다(Goudge 1967, 292). 그런데 그 어떤 것이 생명의 약동이라는 것이다.

베르그송이 다루려고 헛되어 노력했던 주된 문제점은 이 생명력(vital force)의 기원에 대한 설명과 새로운 생명체를 만들어내기 위해서 그것이 어떻게 기능했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증거를 보여주지 못했다는 것이다. 그 이론이 가진 다른 많은 문제점들 가운데, 진화가 무질서한 길 대신에 그러한 길을 택했는지를 설명하지 못했다는 사실이다(Bothamley 2002).

비록 일반인들의 생각 속에는 베르그송의 노벨상 수상이 직접적으로 ‘그의 걸작인 창조적 진화’와 연관되어 있겠지만, 그 노벨상은 사실상 창조적 진화라는 생각과, 생물학적 업적, 그리고 그의 이론에 대한 암시를 다룬 미학에서의 글을 포함해서 그의 철학적 업적에 대한 전반적인 영역에 대한 수상이었다(Schlessinger and Schlessinger 1986, 56). 노벨상 표창장에는 “그의 풍부하고 활력이 넘치는 생각과 그것들과 함께 제시된 놀라운 기술을 인정하여”라고 써어있다.

## 토론 (Discussion)

베르그송의 이론은 많은 학자들에게 자연선택이 미세 조정할 수 있는 유전적 변이의 근원에 대한 그럴싸한 설명인 것으로 보였기 때문에 노벨상이 주어졌다. 하지만, 그것이 폐기처분되었을 때, 베르그송의 이론을 믿는 이들은 또 다른 메커니즘을 제시하게 되었다.

수십 년 간 널리 알려진 한 가지 메커니즘은 **정향진화(orthogenesis)**이다. 이 이론에서는 진화가 특정한 방향으로 변화가 일어나도록 이끄는 내부의 유기적 힘의 영향으로 말미암아 일어난다고 이야기 한다. 그 결과 유기체는 배아가 내력(internal forces)에 의해 성년으로 발달하도록 인도되는 것과 마찬가지로 완벽함으로 인도된다는 것이다. 이 이론도 또한 힘이나 방향을 공급할 수 있는 어떠한 메커니즘도 발견되지 않았기 때문에 결국 폐기되었다.

다양성의 근원에 대한 또 다른 주된 이론은 **대진화**이다. 브리스(Hugo De Vries; 1848-1935)는 달맞이꽃(evening primrose)에 대한 그의 연구로 극적으로 새로운 변종과 특성이 갑자기 발생할 수 있음을 보여줬다. 그와 다른 이들은 이러한 대진화가 마침내 진화론자들에게 새로운 유전적 특성을 만들어내는 메커니즘을 제시했다고 믿었다. 하지만, **뒤따른 연구를 통해 드 브리스의 변화는 돌연변이 때문이 아니라 달맞이꽃 내에 있는 다른 염색체수로 인한 것으로 그것이 잡종 식물이 나타나도록 해서 새로운 변종을 만들어낸 것(not due to mutations, but unequal chromosome numbers in evening primroses that cause hybrid plants to appear, producing new varieties)**임이 밝혀졌다.

대진화라는 개념은 1940년대 캘리포니아 버클리 대학교의 유전학자인 골드슈미트(Richard Goldschmidt)에 의해 잠시 동안 부활되었다. 그는 주된 새로운 동식물 변종의 기원이 ‘희망적 괴물’ 즉 크고 복잡한 변화를 포함하는 단일 돌연변이들로 인한 것이라고 결론 내렸다. 이제 우리는 새로운 동물목이 진화하는데 필요한 모든 변화를 만들어 내기 위해서는 수백 혹은 수천 번의 돌연변이가 요구된다는 것을 안다. 덧붙여, 대진화에 대한 만족할 만한 메커니즘은 오늘날의 신다윈주의자들에 의해서 하나도 제안되지 않았다.

오늘날, 많은 진화론자들은 다수의 작은 돌연변이들이 대진화를 설명할 수 있을 것이라고 추정한다. 이러한 결론은 실험적 증거에 기초한 것이 아니라 단지 소진화(변이)에 대한 증거가 대진화로 외삽될 수 있다는 가정에 근거한 것이다(This conclusion is not based on experimental evidence, but on the assumption that the evidence for microevolution can be extrapolated to macroevolution). 하지만, 경험적 증거는 대진화(진화)든지 소진화(변이)든지 간에 어떠한 것도 새로운 유전적 정보의 중요한 근원을 제공할 수 없음을 명백히 보여준다. **“돌연변이의 축적은 새로운 종이나 심지어 새로운 조직이나 기관조차도 만들어낼 수 없다(Mutation accumulation does not lead to new species or even to new organs or tissues)”** (Margulis and Sagan, 2002, 11). 돌연변이는 결국 질병과 죽음으로 이끈다. 마굴리스(Margulis)가 과학자들의 영예 단체인 시그마 6의 회장이었을 때, 그는 “많은 생물학자들이 무작위적인 돌연변이(목적이 없는 우연)가 새로운 종의 생명체를 발생시키는 유전적 변화의 근원이라고 확신한다고 주장한다. 하지만 나는 ‘아니다!’라고 말하겠다”고 덧붙였다(Margulis, 2006, 194). 지적 설계는 지적인 근원을 가정하며 창조론자들은 그 근원이 우리가 하나님이라고 부르는 창조주라고 결론짓는다.

## 요약 (Summary)

베르그송에서 거의 1세기 후에, 신다윈주의자들은 여전히 대진화를 추진한다고 믿고 있는 새로운 유전정보의 근원에 대해서 치열하게 논쟁을 벌이고 있다(Sterelny 2001). 이러한 사태는 가설의 부족 탓이 아니다. 창조적 진화와 ‘다윈주의적 메커니즘을 대신하는’ 다른 이론들(Bothamley, 2002, 127)이 널리 지지를 받았지만, 주의 깊게 점검했을 때, 결국 모든 이론들이 성립하지 않는 것으로 버려졌기 때문이다(Bergman, 2003).

지금까지, 어떠한 후다윈주의적 이론도 신다윈주의의 주된 결점인 새로운 생물학적 정보의 근원을 다룰 수 없었다. 하버드 대학교의 생화학자에 의해서 언급되었듯이, “진화론적 이론은 떠들썩한 분야로 많은 다른 관점들이 현재 패권을 다투고 있다”(Esensten 2003, 2).

원문출처: <http://icr.org/article/3383/> **창조**





## 대나무 신앙

제가 사는 아파트 옆의 야산에 대나무들이 숲을 이루고 있다. 대나무는 씨앗을 심은 후 처음 4년 동안은 땅 위에 별로 나타나지 않는다. 4년 동안 땅 속에서만 자라기 때문이다. 그 동안에 섬유질의 뿌리 구조가 형성되는데 땅속으로 깊고도 넓게 퍼진다. 그러다가 5년째가 되면 드디어 땅 위에 솟아 있던 죽순으로부터 대나무가 자라기 시작하는데 키가 가장 큰 것은 25미터 이상 성장한다. 죽순은 5월 중순에서 6월 중순까지 나오는데 매년 같은 양의 죽순이 나오는 것이 아니고 많이 나오는 해와 죽순이 적게 나오는 해가 교대로 있기도 하며 주기성이 2-3년 후에 생기는 경우도 있다.

우후죽순이라는 말이 있듯이 비가 온 다음 습기가 많고 기온이 올라가면 부쩍 자란다. 왕대의 경우 하루 동안에 빠르면 60cm정도까지 자라는데 일본에서 측정한 자료를 보면 최고 1m 20cm까지 자란 경우도 보고 되고 있다. 대나무가 하루 동안 성장하는 것이 소나무가 30년 동안 자라는 길이와 같다고 한다. 이렇게 빨리 자라는 이유는 소나무의 경우 생장점은 가지 끝에만 있는데 반해서 대나무는 생장점이 마디마다 존재하기 때문에 식물 호르몬인 지베렐린과 옥신이 많이 분비되어 길이 성장이 촉진되기 때문이다. 대나무는 성장을 시작하면 성장하는 속도가 크기 때문에 생장이 일찍 완료된다. 대나무의 종류마다 다르지만 왕대의 경우 대개 30일-50일 만에 성장을 완료한다. 다 자란 후에는 더 이상 굽어지지 않고 나무의 재질이 단단하게 된다. 대나무의 일생을 바라보면 죽순이 나오기까지 오랜 시간 땅속에서 준비하는 시기가 있고 일단 성장하기 시작하면 신속하게 자라고, 이후에는 오랜 기간 동안 푸르름을 자랑한다.

우리의 인격과 신앙도 같고 닮는 오랜 기간이 필요하다. 인격의 변화는 일순간에 이루어지는 일이 아니다. 우리의 몸은 편안해지려는 쪽으로 움직인다. 좀 더 편하고 좀 더 안락한 곳을 찾으며 좀 더 쾌감을 느끼는 것을 위해 시간과 에너지를 쓰도록 작동한다. 그런데 이러한 방향과는 반대로 움직여야 지금보다 더 강인하고 성숙한 모습으로 성장할 수 있다. 육체적인 건강과 이를 지속시킬 수 있는 단단한 몸을 만들기 위해서는 편안한 소파에서 박차고 일어나 운동장으로 나와야 한다. 정신적인 깊이를 얻기 위해서는 이불을 걷어치우고 침대에서 빠져 나와야 한다. 그리고는 시간을 아껴서 손에 책을 잡고 머리 속에 지식을 하나씩 쌓아가야 한다. 영적인 성장을 위해서도 마찬가지 이다. 성숙한 신앙으로 자라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을 효과적으로 감당하며 좋은 열매를 얻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고 배워야 한다. 그리고 배우고 깨달은 말씀대로 실천에 옮기면서 살아있는 신앙으로 변모해야 한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일은 당장에 즐겁지 않을 수도 있고 물질적으로 손해를 볼 수도 있다. 내 몸이 자연스럽게 흘러가고자 하는 방향과는 역행하는 경우가 많다. 따라서 이러한 일들은 장기적인 관점에서 지속적인 노력이 필요하다.

주님께서 중요하게 사용하시는 요긴한 일꾼이 되고자 하는 목표를 가지고 꾸준히 육적, 지적, 영적인 훈련을 하면 대나무가 비 온 후에 쭉쭉 자라듯이 어느 순간 자기도 모르게 훌쩍 커 버린 자신을 발견하게 될 것이다. 우리는 이 땅의 영적 부흥을 갈망하며 기도한다. 이 시대에 살고 있는 많은 사람들이 주님을 알며 주님을 인생의 주인으로 고백하는 일들이 편만하길 고대하며 기도한다. 부흥의 불길은 대나무 죽순과도 같다. 타오르기 시작하면 건잡을 수 없이 요원의 불길처럼 타오를 수 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먼저 준비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우리가 어린 신자들을 충분히 도와줄 수 있는 성숙된 그리스도인이 되기까지는 기다려야 한다. 우리의 인격이 미흡하여 주님의 일꾼으로 부끄럽게 비쳐진다면 부흥의 시간은 늦어질 것이다. 우리의 삶에서 그리스도의 향기가 퍼지며 주위의 사람들로부터 인격적으로도 존경을 받을 수 있도록 훈련되어야 한다.

모세는 비록 히브리 노예의 아들로 태어나 나일강에 버려지는 안타까운 현실에 처해졌으나, 극적으로 이집트 공주의 손에 의해 건져져 공주의 아들로 입적이 되어 당대 최고로 부강한 나라 이집트의 왕실에서 왕자수업을 받았다. 40년 동안 당대의 최고 학문과 통치 및 군사 훈련을 받았다. 히브리 노예를 괴롭히는 이집트 군사를 때려 죽일 정도로 모세의 몸은 강건하고 정의감으로 충만했으며 그의 지성은 누구보다 폭이 넓었다. 그러나 이것만으로 하나님의 일꾼이 되기에는 부족했다. 이집트 군사를 죽인 혐의로 쫓기는 신세가 된 모세는 호화로운 왕궁이 아니라 황량한 미디안 광야에서 40년을 지내며 절제와 겸손의 훈련을 받으며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아가고 하나님을 올바로 섬기는 영적인 훈련을 받았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수준에 올랐을 때 이스라엘 민족을 이집트로부터 구원하여 인도하는 지도자로 세워졌다. 참으로 인고의 긴 세월을 보냈다. 준비된 그릇으로 만들기 위해 오랜 기간 동안 훈련의 기간을 통과하도록 했다.

### 우리의 삶에서 그리스도의 향기가 퍼지며 주위의 사람들로부터 인격적으로도 존경을 받을 수 있도록 훈련되어야 한다.

현재의 우리 삶을 돌아보면 기쁨을 줄 때도 있고 좌절감을 느끼게 할 때도 있다. 그러나 일희일비하지 말고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목표의식을 가지고 차곡차곡 준비하면 반드시 우리가 원하는 부흥의 계절이 올 것이다. 대나무는 매화, 난초, 국화와 함께 사군자(四君子)로 일컬어져 왔고, 특히 사철 푸르고 곧게 자라는 성질로 인하여 지조와 절개의 상징으로 인식되어 왔다. 여름의 뜨거움과 겨울의 한파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꽃꽂하게 서있는 대나무를 바라보며 세상의 조류에 타협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이 가르치는 대로만 살겠다는 삶의 철학으로 오늘 하루도 절제하며 기도하는 마음으로 걸어가길 소원한다.

출처 : '과학으로 하나님을 만나다' 중에서 **창조**



## 가인은 어디서 아내를 얻었는가?

저는 개인적으로 어릴 때부터 대학초반부까지 열심히 교회생활을 했었다. 하지만, 성경 속에 나오는 많은 이야기들 중에서 이해되지 않는 부분들에 대한 답변을 속 시원하게(?) 얻을 수 없었기에 늘 의심을 가지고 있다가, 결국엔 인본주의의 본산인 대학에서 세속적 학문에 젖어들면서 하나님을 떠나게 되었다.

1997년에 개봉되었던 영화 ‘콘택트(Contact)의 원작자로 유명한 칼 세이건(Carl Sagan; 1934-1996) 박사도, 그의 자전적 소설에서 다음과 같은 내용을 담고 있다. 자신은 어렸을 때 주일 학교에 다녔었던 적이 있는데, 어느 날 성경을 읽다가 가인은 어디서 아내를 얻었는지 궁금했었고, 그에 대한 답을 교회에서 얻지 못하자, 차츰 성경을 불신하기 시작하여 결국엔 교회를 떠나는 계기가 되었다는 것이다.

우리가 잘 아는 바와 같이 칼 세이건은 그 후 철저한 진화론자로 탈바꿈하여, 인간보다 고등한 외계 생명체를 찾아보겠다고 엄청난 돈을 투자하여 설립한 천체 망원경을 가지고 외계에서 오는 라디오 신호를 찾는데 그의 일생을 주력하였을 뿐만 아니라, 그의 진화론적 세계관을 토대로 낙태를 옹호하는 주장을 펴기도 하였다.

결국, 사소한(?) 질문에 답변이 준비되지 못했던 교회는 한 사람의 영혼을 잃어 버렸을 뿐만 아니라, 당대에 가장 영향력 있는 반기독교 인물을 배출하는데 간접적인 역할을 하고만 셈이 되어 버렸다.

자, 그러면 과연 가인은 어디서 아내를 얻었는지 그 답을 찾아보기로 하자. 우선, 성경은 아담이 첫 사람이며(고전 15:45), 그의 아내 하와는 모든 산 자의 어미가 되었다고(창 3:20) 기록하고 있으므로, 모든 인류는 아담과 하와 두 사람으로부터 시작되었음을 알 수 있다. 그 다음, 성경은 아담이 930세 까지 살았으며, 그 동안에 많은 자녀들을 낳았다고 기록하고(창 5:4-5) 있으므로, 아담의 큰 아들인 가인에게는 배필로 삼을만한 그의 여동생이 많이 있었음을 알 수 있다. 뿐만 아니라, 또한 아담의 자손들이 계속하여 인구를 늘려갔을 것이므로, 가인은 필경 당시 아주 큰 인구를 이루었을 아담의 자손 중에서 아내를 얻었을 것이 분명하다.

그렇다면 근친간의 결혼에 대해 의문을 가지게 될 것인데, 노아의 대홍수 전에는 지금의 환경과는 전혀 달랐으며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셨을 때의 완전한 육신에서 타락의 결과로 유전적 결함이 있었을 것이나 현재와 같이 유전적 결함이 누적되어 발현되는 정도와 비교했을 때는 현저히 낮았을 것이므로 큰 문제가 되지는 않았을 것이다.

그러다가 모세의 때가 되었을 때에 비로소 하나님께서 율법(레 18-20)으로 금지하셨다. 왜냐하면 이제 노아의 대홍수로 궁창 위의 물층을 잃어버려 외계로부터 오는 고주파 에너지를 담고서 지구로 들어오는 우주선(cosmic rays)으로 말미암아 유전적 결함이 더욱 유발되었을 것이기 때문에 근친간의 결혼으로 유전병이 발현될 확률이 훨씬 높아졌기 때문이다.

### 결론>

성경은 분명 역사책만이라거나, 과학책만은 아니다. 하지만, 성경에 어떤 역사적이거나 과학적인 기록이 나올 때는 이것은 분명 사실이다. 가인이 결혼하여 아내를 얻었다는(창 4:17) 기록은, 당시의 상황을 성경의 기록을 토대로 다시 추적하여 그려보면, 별 어려움 없이 역사적 사실로 그리고 과학적으로도 아무런 모순이 없이 받아들일 수 있는 내용이다.

우리가 성경을 읽다 보면 가끔 이해하기 어려운 구절을 접하게 될 때가 있다. 이럴 때, 성경을 자세히 읽어 보며(사 34:16) 성령하나님께서 주실 답변에 귀 기울여야 할 것이다. 더 이상 제 2의 칼 세이건 같은 이가 나오지 않기를 소망한다.

너희는 여호와의 책을 자세히 읽어보라 이것들이 하나도 빠진 것이 없고 하나도 그 짝이 없는 것이 없으리니 이는 여호와의 입이 이를 명하셨고 그의 신이 이것들을 모으셨음이라 - 이사야 34:16

### 창조퀴즈> ‘

가인은 어디에서 아내를 얻었을까’라는 의문에 대한 답변을 얻지 못해 철저한 진화론자로 탈바꿈한 천문학자는 누구인가? ^ **창조**

본 전자소식지를 계속해서 받아 보기 원하시면, 저희 창조과학회 대구지부 홈페이지([creation21.or.kr](http://creation21.or.kr))를 방문하셔서 **회원가입(무료)**하시고, 가입하실 때 반드시 **E-mail** 주소를 기입해 주시면 됩니다. 혹시 요청하실 사항이 있으시면, 다음 이메일 주소(ssoya89@hanmail.net)로 요청사항을 적어서 보내주시면 됩니다. 달마다 더욱 좋아지는 소식지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